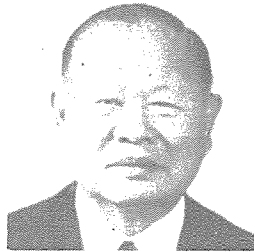


“우리의 目標은 追擊이 아니라 追越”



崔 基 哲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의 科學과 技術이 先進國 수준을 追越하여야 한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政治家들, 科學者나 技術者 자신들, 그렇지 않으면 科學行政家들인가.

先進國 水準을 追越하겠다는 것인지,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明確한 答을 듣고 싶다. 따라가겠다는 것과 追越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부터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科學者들은 현재 몇 사람이나 있으며, 그들은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國內外에서 活躍해 있는 그들의 近況을 누가 알고 있는가. 그들 중 이른바 水準級의 學者들이 몇 사람이나 되며, 그것을 어떤 方法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떠하며, 특히 少壯學者들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가?

21세기를 겨냥한 科學教育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며, 探究學習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國際科學教育 성취도 中間分析 結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15개국 중 高等學校 14위라는 수치스런 結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며, 國民學校 1위가 中學校에서 9위, 高等學校에서는 14위로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대로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어떤 結果가 오겠는가.

「科學技術振興方案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投資額에 正比例한다」고 많은 科學者들이 答을 한다. 科學行政家나 教育者들까지도 그런 答을 한다.

그렇다면 中進國이나 後進國은 영원히 先進國을 追越할 수는 없다는 말과 같을 것이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며,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실험기구나 圖書가 한번도 쓰여지거나 읽히지 않고 장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金요하게 쓰여져야 할 豫算이 이런 式으로 낭비되어도 된단 말인가.

水準級의 科學者들이 豫算이 없어서 開店休業을 하고 있는 예는 없으며, 그런 失政을 누가 보살피 주는가. 그들이 計劃書 보따리를 들고 東奔西走하는 일은 없으며, 그들이 研究室을 비우고 보잘 것 없는 行事들에 力을 쓰기 위하여 바

뿐 나날을 보내는 일은 없는가? 이 모두가 그분들의 意思에 따른 것이라고 責任을 本人들에게만 돌려도 되는 것인가?

豫算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들 科學者들을 찾아다니면서 必要한 經費를 나누어주면 안되는 것인가? 그들 科學者들이 대수롭지 않은 行事に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配慮할 수는 없는가? 그분들을 위하여 豫算을 얻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先進國 水準을 追越하는 가까운 길인가?

國際水準級の 弟子가 科學高等學校에 入學을 한다. 熱誠的으로 教育을 한다. 수준급의 探究學習이 이루어진다. 그 學生들을 대상으로 科學教育 成就度를 評價한다면 世界 어느 나라에 뒤지겠는가? 그런데 그들에게 大學入試準備를 하라고 하니 이 무슨 날벼락이며, 無試驗으로 받아주겠다는 大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억지로 入試準備를 시켜야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水準級の 學生이 大學에 入學을 하고, 教授와 學生이 一心同體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수준급의 학생으로 大學을 卒業한 후 碩士課程도 마친다.

이런 水準級の 學生이라면 그들이 바로 21世紀의 우리의 水準級 科學者로 成長할 수 있는 後補者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博士課程 教育을 맡아줄 教授가 부족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여건상 先進國으로 가야 한다고 學生들 自身이 생각한다면 딱한 일이지만 더욱 教授들까지 그것을 勸誘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것은 커다란 悲劇이다. 꼭 붙잡아야 할 愛弟子를 교육할 수 없다고 보내는 教授의 心情은 달랠 길이 없을 것이다.

博士課程을 履修할 青年科學者들에게 충분히 研究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준다면 그들은 外國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產出된 國產 博士라면 外製보다 優位에 있게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우리의 國力은 이미 그것이 가능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大學의 研究室을 보면 水準級の 少壯教授가 豫算圈 밖에 있으면서도 大學院生들과 땀을 흘리고

있다. 水準級 이상의 實驗結果가 續出한다. 聖스러운 光景이다. 목마른 그들에게 물한모금이라도 주고 싶다.

一團의 少壯科學者들의 모임이 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長短을 補完하면서 前進하고 있으며, 이미 그 方面에서는 世界水準을 추월하고 있다.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한 區域의 初·中等學校 科學教師들 活動을 보면 5年, 10年, 그칠 줄 모르는 그들의 精進, 團合, 精神的 姿勢, 그런 것들이 初·中等 科學教育이 世界第一이라는 오늘의 結實을 보게 한 것이다. 이 얼마나 榮光스러운 일인가.

입만 벌리면 世界 水準에 挑戰, 追擊 云云하는 敗北主義者들에게 이런 광경들을 실컷 보여주고 싶다.

따라잡는다는 것과 뛰어넘는다는 것은 次元이 다르다. 우리의 目標은 追擊이나 挑戰이 아니고 追越이다. 그것도 앞으로 20年이라는 時限이 붙어 있다.

우리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감한 조치가 斷行되어야 한다.

첫째로 一部에서 행해지는 要式行爲에 豫算과 精力을 탕진하는 일은 앞으로 20년간 保留되어야 한다.

둘째로 豫算權을 쥐고 있는 분들은 空虛한 數字를 羅列하기 위한 덮어씌우기式 豫算 分配를 止揚하고 渴症에 허덕이는 科學者나 科學教育者들에게 목을 축여주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셋째로 國內에서 水準級 이상의 博士課程 履修가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네째로 科學者나 技術者는 退溪先生이나 栗谷先生이 어떤 方法과 姿勢로 최고 수준을 追越했는지를 살피주기 바란다. 특히 그분들의 人格을 거울삼을만한 雅量을 갖는다면 오늘의 우리 科學者들에게 新天地가 展開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目標은 追越이다. 뜻을 같이하는 政治家, 行政家, 教育者, 科學者, 技術者, 實業家, 經濟人, 言論人 모두 한 덩어리로 뭉쳐서 前進한다면 목표달성은 놀랄만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